
광주 '인사이트(Insight) 경제'



사단법인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61-42번지(3층)
T (062) 431-6339 F (062) 262-6340
<http://www.eccplus.co.kr>

《요 약》

▶ 경기지표

광주지역 1월 경기확산지수는 전월 5.7에서 급락한 4.0을 기록함. 전월에 비해 대체로 구성 지표들의 변동이 작았지만 설 연휴에 따른 일시적 계절요인에 따른 제조업과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기확산지수가 하락함.

▶ 제조업 및 수출

광주지역 1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전년동월비 0.8% 상승에 그쳐 전월 19.5%에 비해 큰 하락폭을 보임. 1월 제조업 재고순환선은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한 11.6을 기록함. 광주지역 2월 수출액은 11억5324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2.0% 증가했음.

▶ 내수

광주지역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한 118.7로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함.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818억원으로 전년동월비 12.2% 상승했으나 광역시 중 최하위에 그침. 광주지역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으로 전월과 같으나 광역시 중 가장 낮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85%로 4개월 연속 하락함.

▶ 고용

광주지역 1월 실업률은 4.3%를 기록, 고용률은 57.4%로 전국 58.6%에 미치지 못하나 최근 고용률 하락세에 비하면 광주지역 고용률 감소폭은 작은 편에 속함. 취업자는 718천명으로 전월대비 4천명 감소함. 연령별로는 15~19세와 50~59세의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세대는 감소 또는 변동이 없었음. 자영업자의 수는 159천명으로 전월과 같았고, 임금근로자는 529천명으로 전월보다 3천명 감소함.

▶ 물가 및 가계

2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1.4% 상승하여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의류 및 신발, 주택가격의 상승과 수도·전기와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 음식 및 숙박업,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물가상승이 요인임. 1월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0.9%,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는 1.8% 상승함.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72.9%임.

▶ 가계부채

1월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는 15조8,070억원으로 전년동월비 6.8% 상승함.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 비중이 45.5%를 차지함. 기관별로 상호금융 52.7%, 신용협동조합 22.5%, 새마을금고 19.9%, 상호저축은행 4.5%의 비중임. 금융기관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예금은행이 8.8%,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4.6%임.

▶ 투자확산지수

2014년 3월 Fast 투자확산지수는 10.0으로 급락, Slow 투자확산지수는 11.7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현재 금융관련지표들이 부진한 가운데 앞으로 산업관련지표의 등락이 투자확산지수의 추가 하락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집중분석 - 사교육비

광주광역시의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23.9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5% 증가하여 부산, 대전과 함께 사교육비가 상승하는 지역에 속함.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지역은 69.8%를 기록함.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계산하면 광주지역은 서울(43.7만원)과 대전(35.6만원)에 이은 34.2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5년간 광주지역의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2009년을 기준으로 5년간 24.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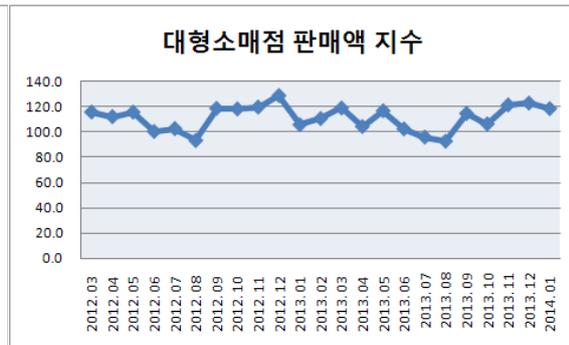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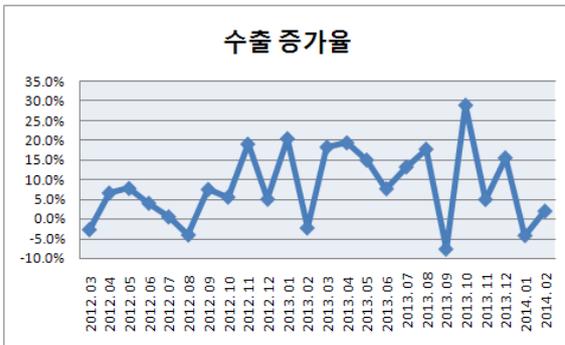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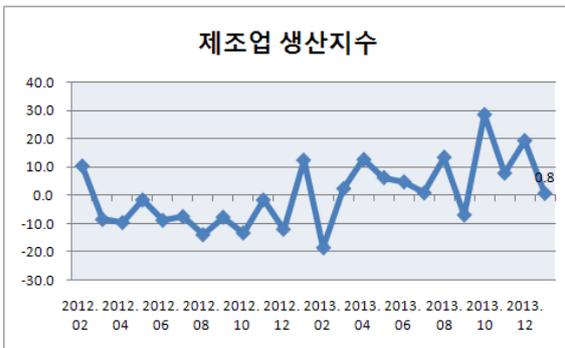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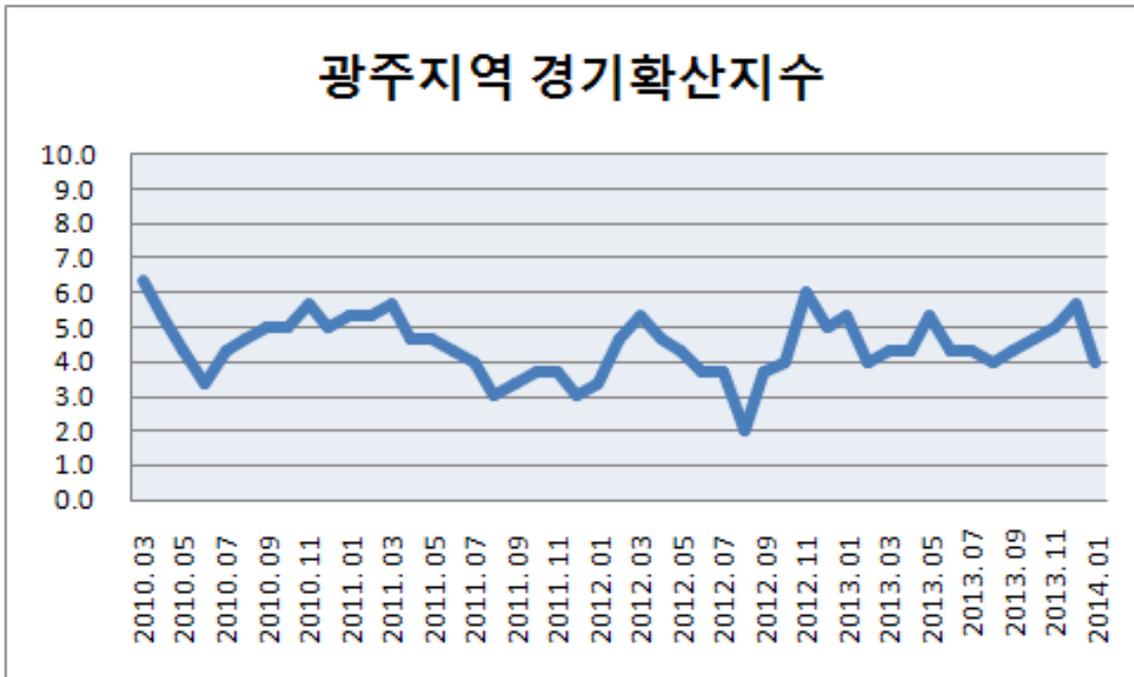
광주지역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평균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1.0만원(+5.5%), 중학교 37.2만원(2.6%), 고등학교 37.6(6.4%)만원으로 나타남. 광주지역 초등학생 학원비가 7.4%, 중학생 학원비가 11.3%, 고등학생 학원비가 9.4%증가함에 따라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반면, 사교육의 대안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광주지역의 참여율은 59.8%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

광주지역은 자녀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 취득을 원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남. 대학이상의 기대교육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경우 광주지역은 자녀의 인격과 교양을 쌓기 위해 대학에 보낸다는 비중이 23.8%로 가장 낮은 반면,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한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3%로 가장 높았음.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로 광주지역은 교육비 부문에 있어 6.8%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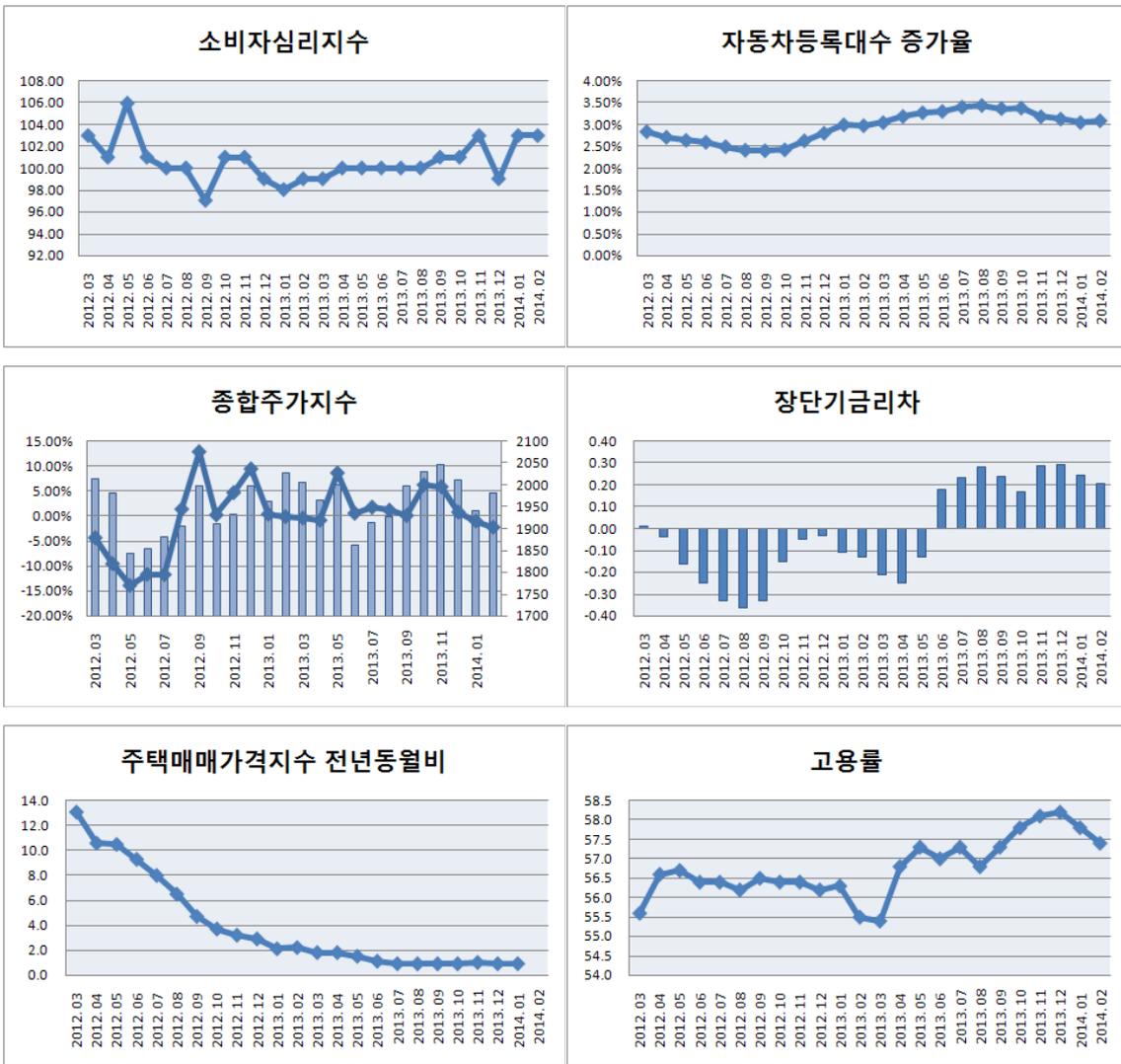
이를 정리하면 광주지역의 학부모는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교육에 대한 지출을 줄일 의향은 낮은 상황임.

1. 경기지표

- 광주지역 1월 경기확산지수¹⁾는 전월 5.7에서 급락한 4.0을 기록함. 전월에 비해 대체로 구성 지표들의 변동이 작았지만 제조업과 고용 지표는 악화되면서 경기확산지수가 하락함. 제조업과 고용 지표의 악화는 설 연휴에 따른 일시적 계절요인에 따른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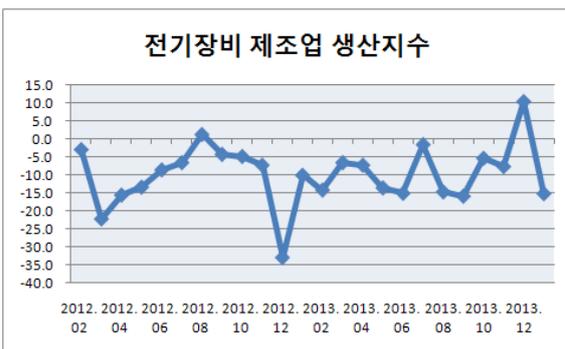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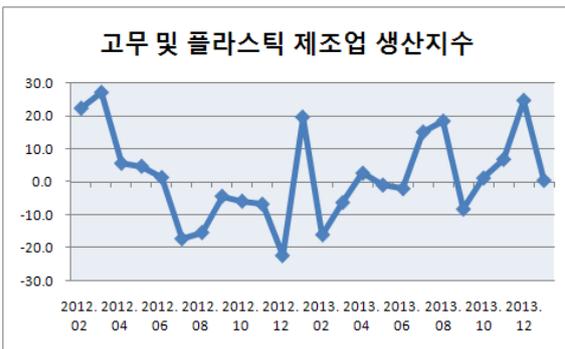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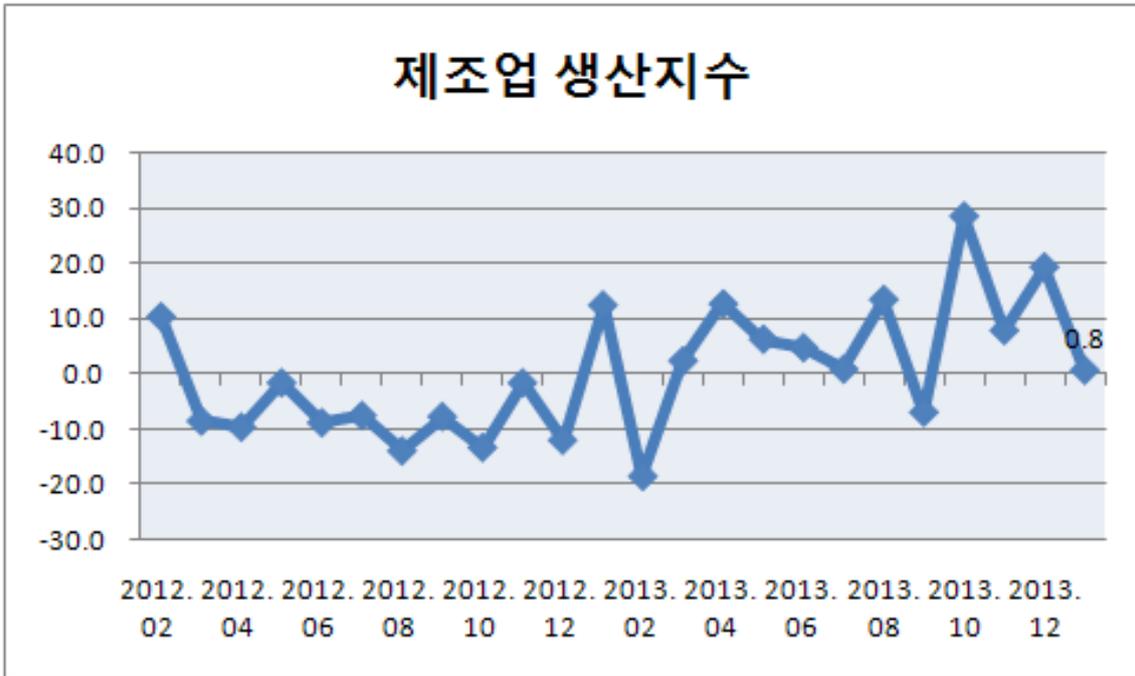


1) 광주지역 경기확산지수는 광주지역의 경기 동향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입니다. 생산, 수출, 내수, 금융 등 각 분야의 다양한 경제지표들을 선정·취합하였고 0에서 10사이에서 경기의 등락과 추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경기확산지수를 새롭게 개편함에 따라 이전 지수와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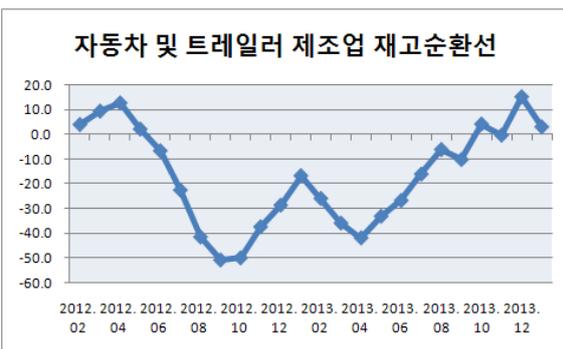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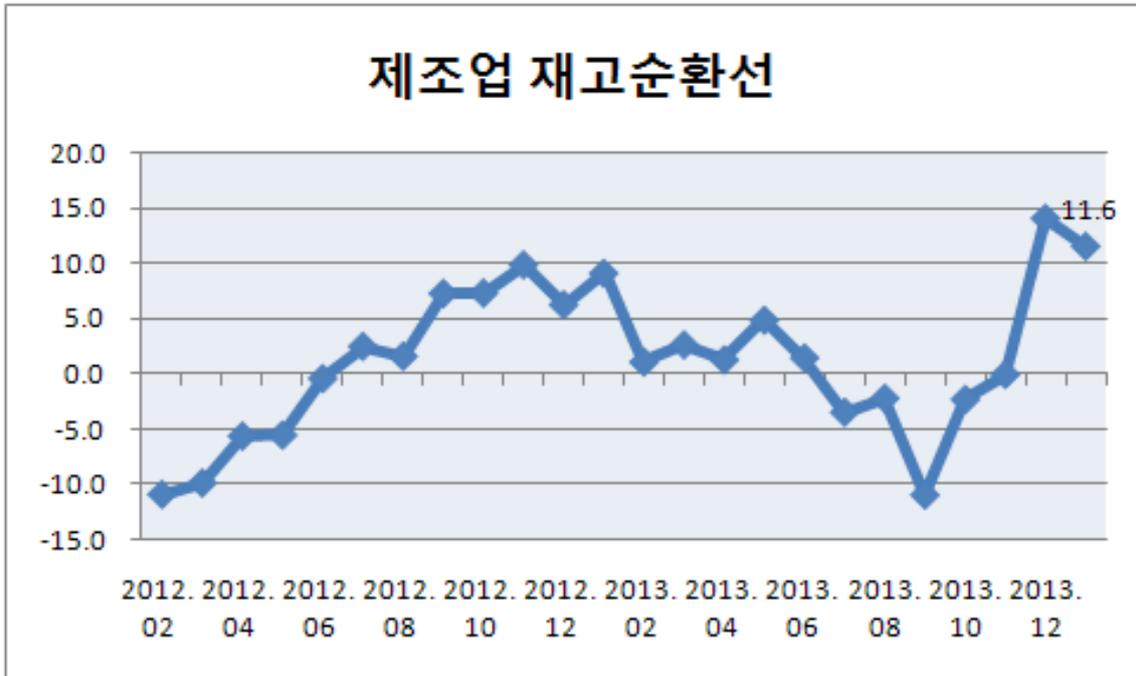


2. 제조업 및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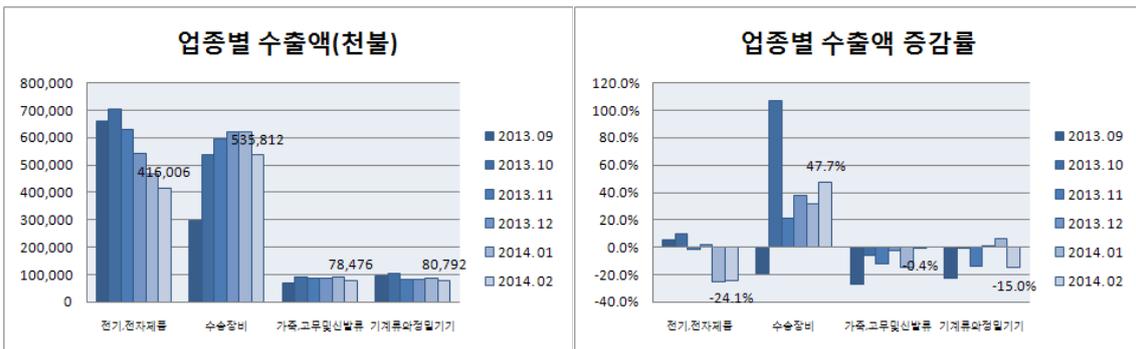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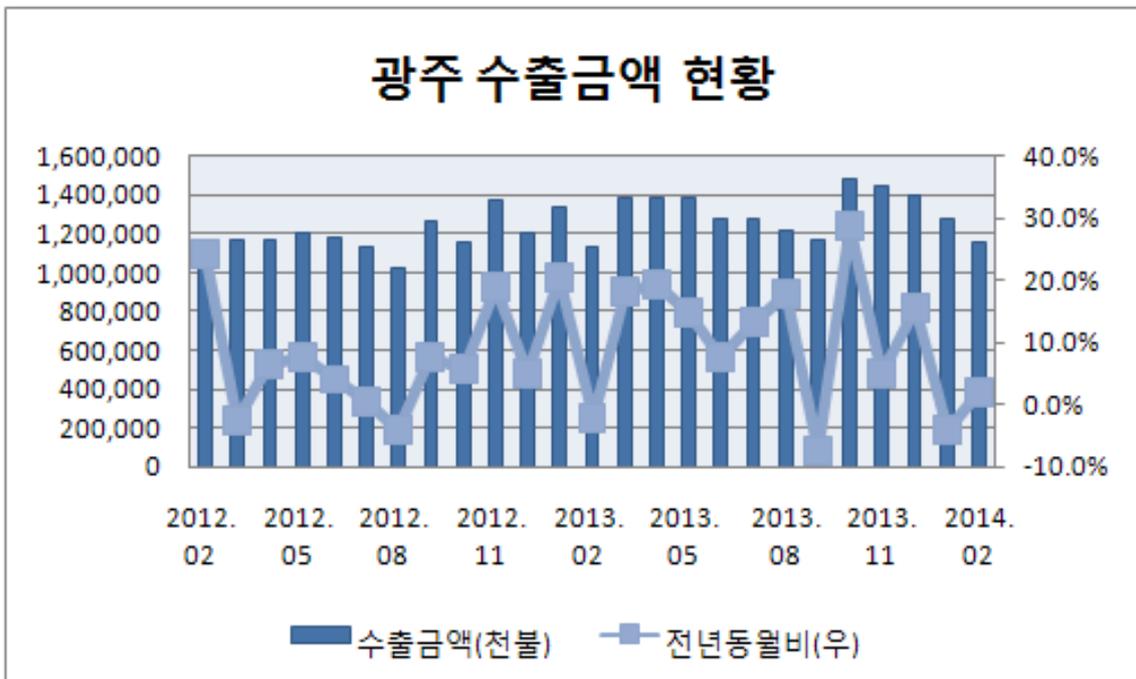
- 광주지역 1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비 0.8% 상승에 그쳐 전월 19.5%에 비해 큰 하락폭을 보임.
- 주요 업종들의 지표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의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광주지역 1월 제조업 재고순환선은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한 11.6을 기록함. 고무 및 플라스틱, 전기장비, 자동차 제조업은 소폭 하락했으나 지표의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음. 전자부품 제조업만이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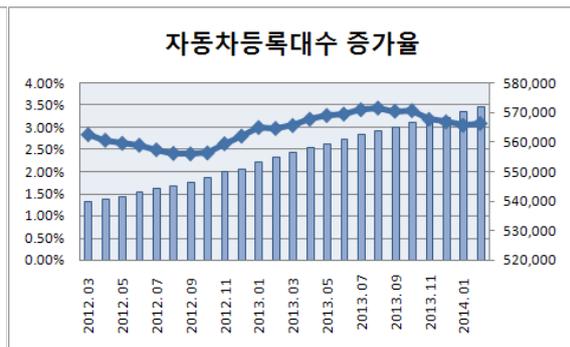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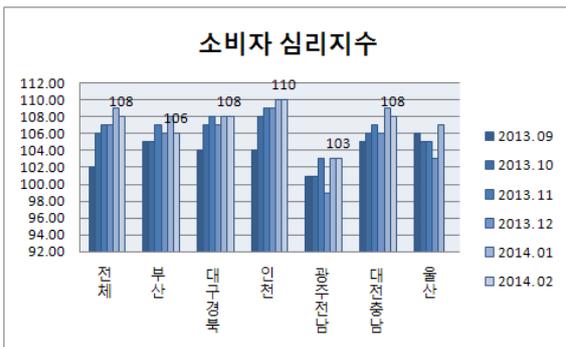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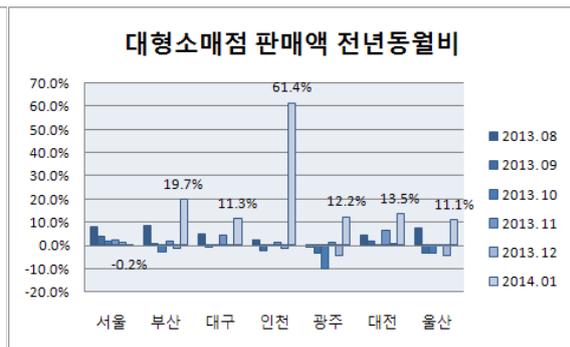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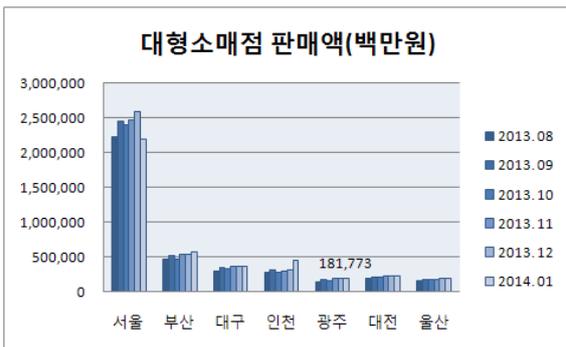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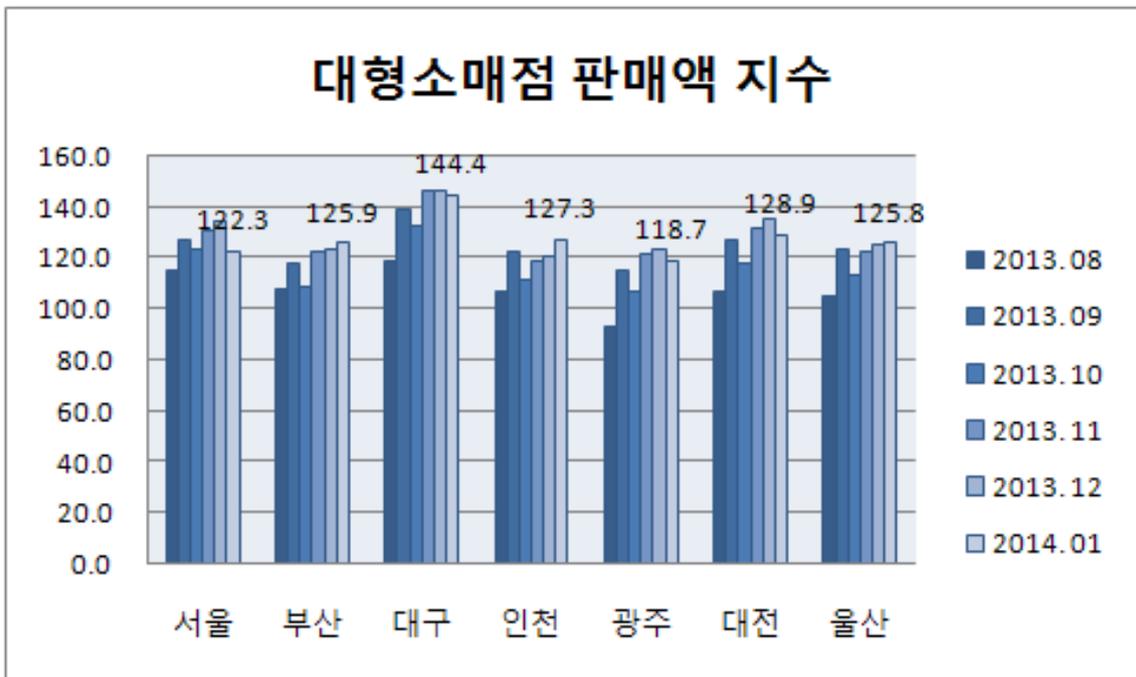


□ 광주지역 2월 수출액은 11억5324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2.0% 증가했음. 주요 업종으로 보면 수송 장비(자동차 제조업)가 5.3억 달러로 47.7%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간 반면 전기·전자제품은 4.1억달러로 전년동월비 -24.1% 하락함. 기계류와 정밀기기, 고무제품은 각각 -15.0%, -0.4%씩 수출이 감소함.



3. 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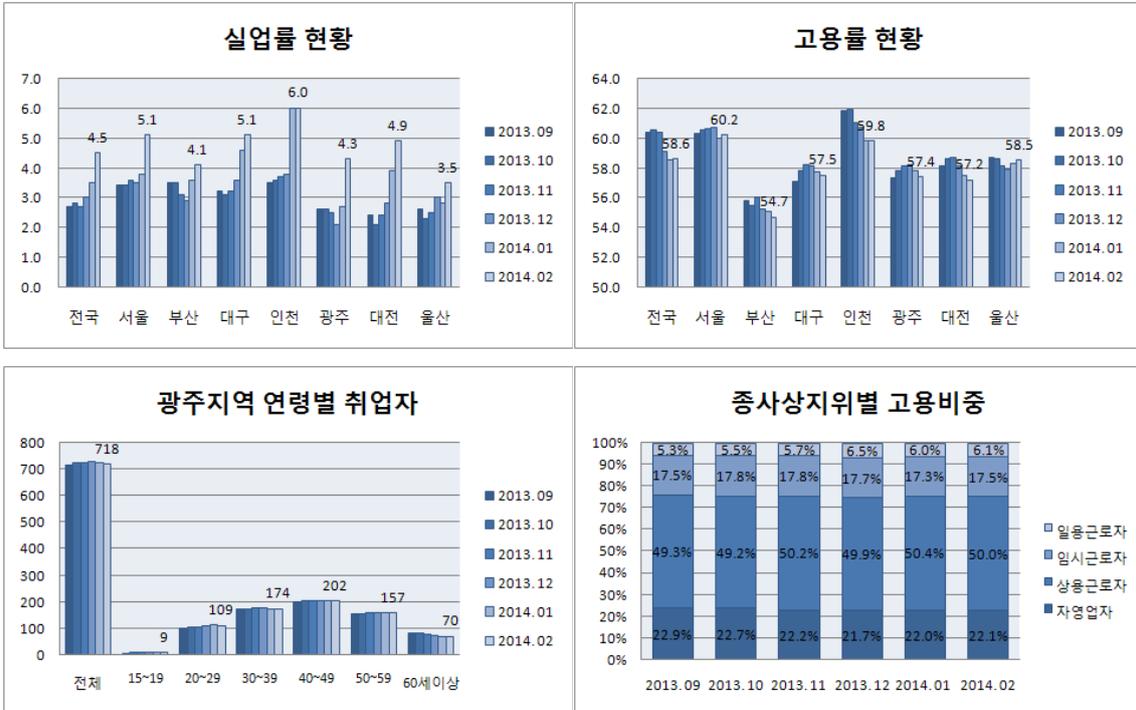
- 광주지역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한 118.7로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함.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818억원으로 전년동월비 12.2% 상승했으나 광역시 중 최하위에 그침.
- 광주지역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으로 전월과 같으나 광역시 중 가장 낮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85%로 4개월 연속 하락함.



4.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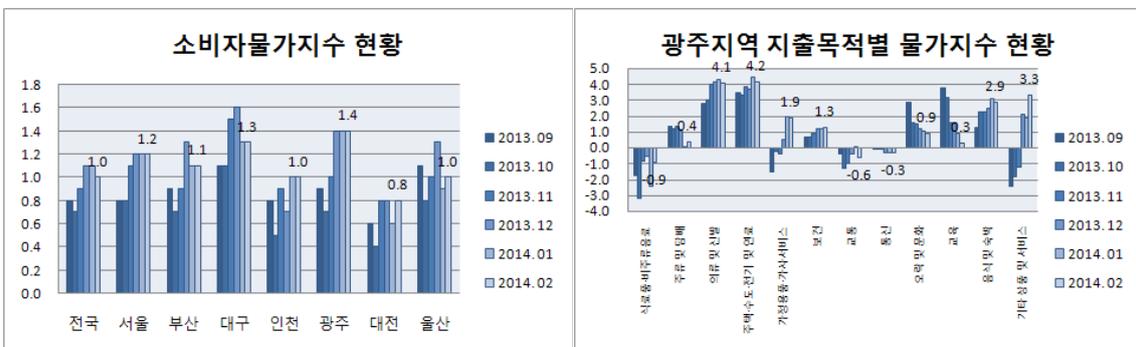
- 연휴 등 계절요인에 따라 전국적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광주지역 1월 실업률은 4.3%를 기록함. 고용률은 57.4%로 전국 58.6%에 미치지 못하나 최근 고용률 하락세에 비하면 광주지역 고용률 감소폭은 작은 편에 속함.
- 광주지역 전체 취업자는 718천명으로 전월대비 4천명 감소함. 연령별로는 15~19세와

50~59세의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세대는 감소 또는 변동이 없었음. 자영업자의 수는 159천명으로 전월과 같았고, 임금근로자는 529천명으로 전월보다 3천명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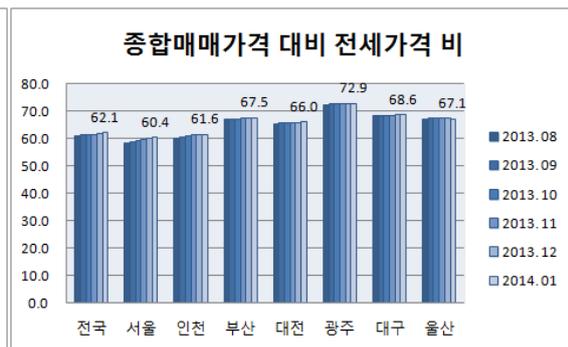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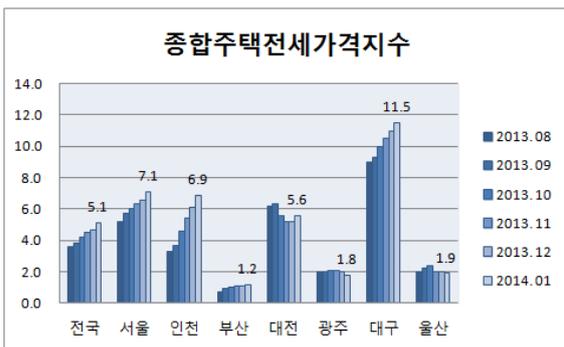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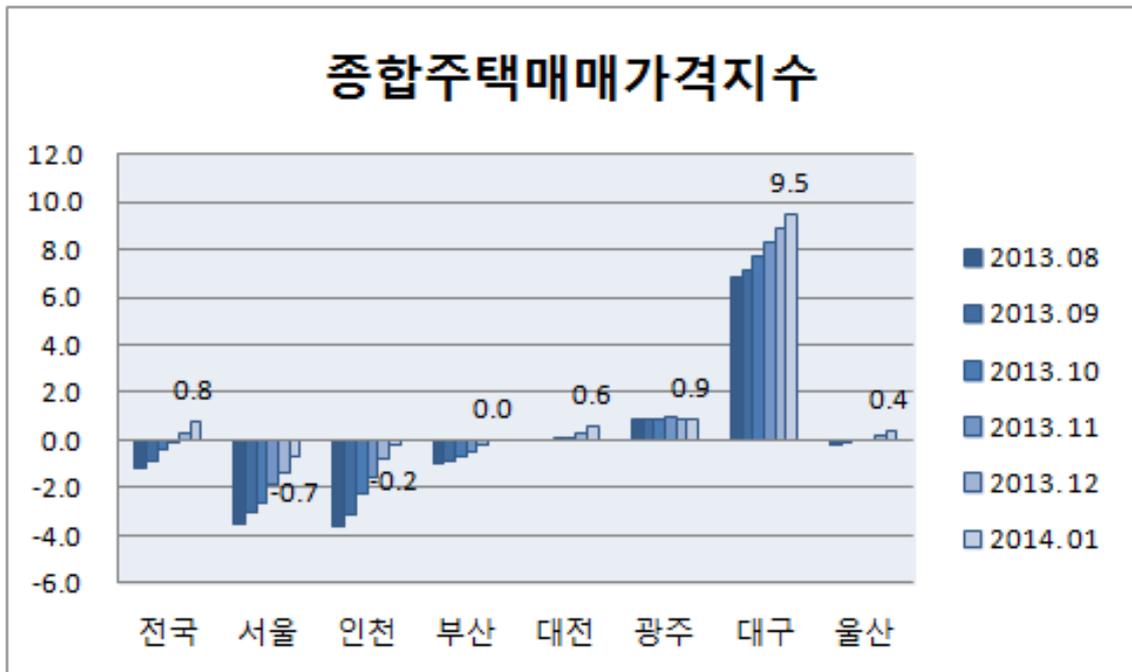


5. 물가

- 2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1.4% 상승하여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의류 및 신발, 주택가격의 상승과 수도·전기와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 음식 및 숙박업,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물가상승이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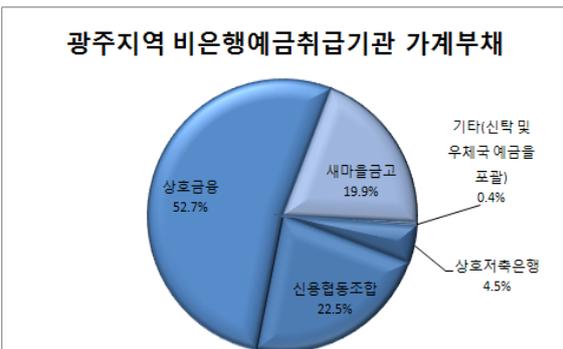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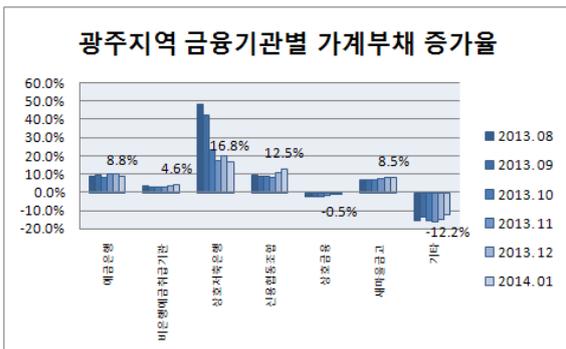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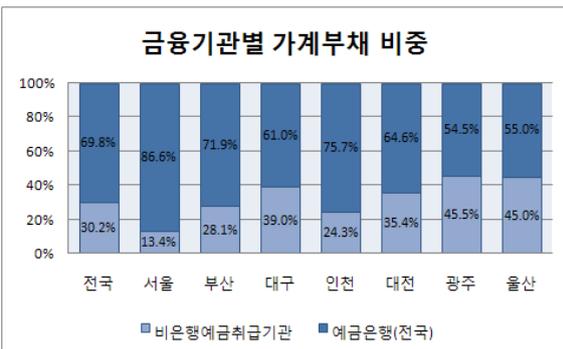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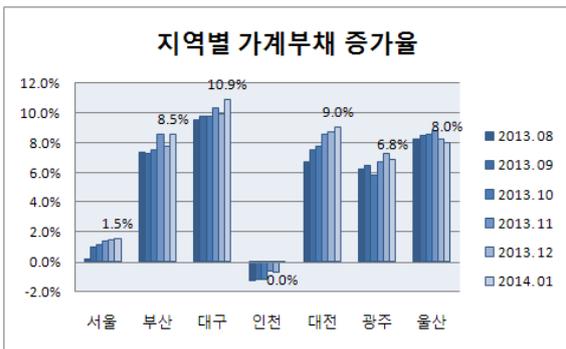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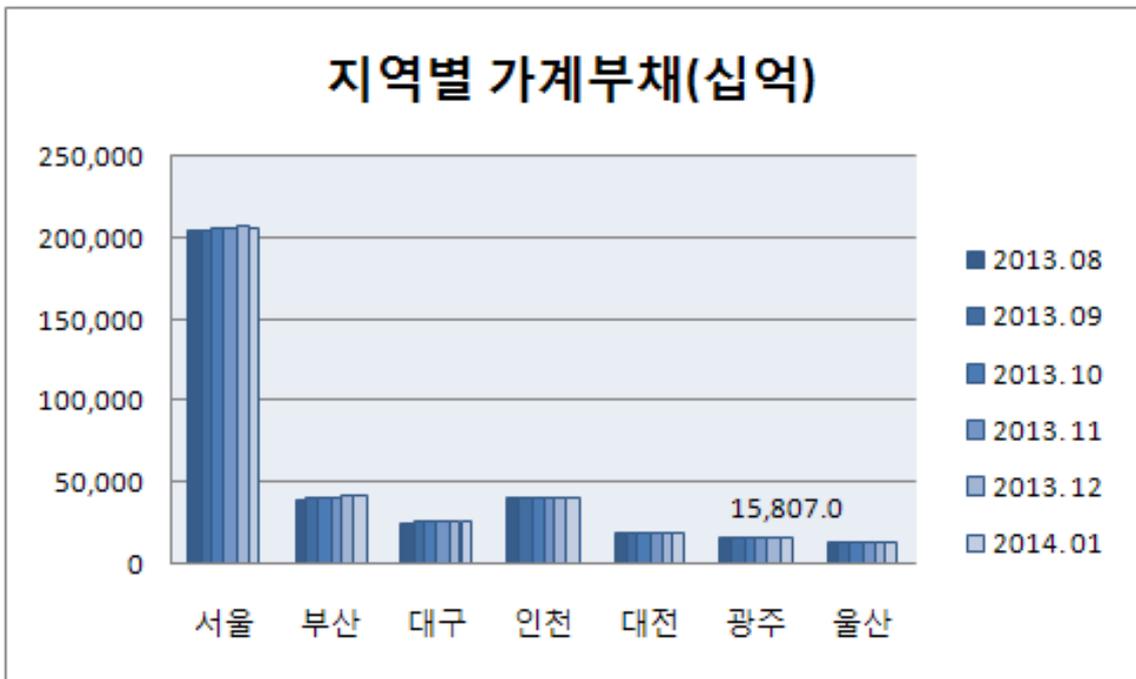


- 1월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0.9%,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는 1.8% 상승함.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72.9%로 주요 광역시 중 가장 높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전세가격의 움직임은 안정되어 있음.



6. 가계부채

- 1월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는 15조8,070억원으로 전년동월비 6.8% 상승함.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 비중이 45.5%를 차지함. 기관별로 상호금융 52.7%, 신용협동조합 22.5%, 새마을금고 19.9%, 상호저축은행 4.5%의 비중임. 금융기관별 가계부채 증가는 예금은행이 8.8%,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4.6%임.
- 전체적인 부채액은 낮은 수치이나 상대적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금융권을 제외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의 비중이 높은 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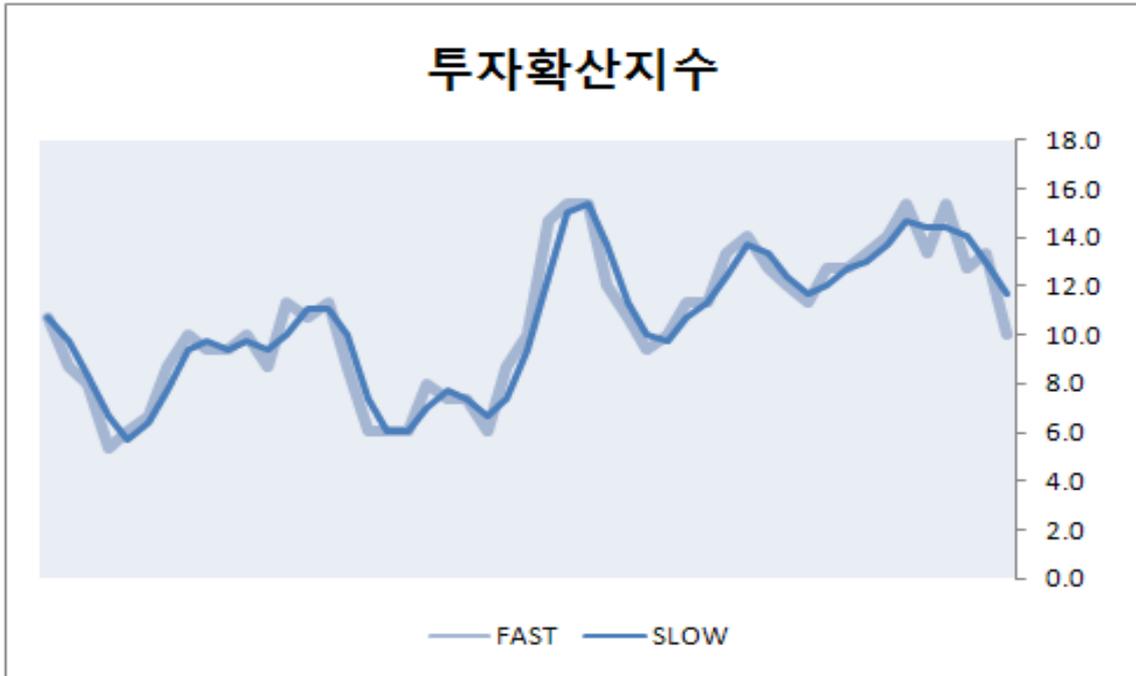


7. 투자확산지수²⁾

□ 2014년 3월 Fast 투자확산지수는 10.0으로 급락, Slow 투자확산지수는 11.7로 4개월 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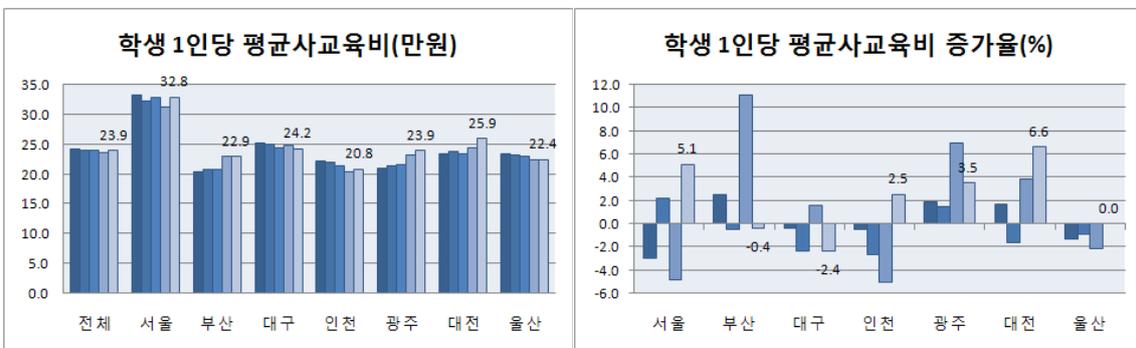
2) 투자결정에 있어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 및 금융시장 지표들을 선정해 만든 확산지수입니다. 투자확산지수의 상승 시 투자를 결정 또는 확대, 하락 시 투자를 철회 또는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2014년부터 빠르고 강한 신호를 나타내는 Fast 지표, 그리고 Fast보다 느리지만 신호 실패가 적은 Slow 지표로 나누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현재 금융관련지표들이 부진한 가운데 앞으로 산업관련지표의 등락이 투자확산지수의 추가 하락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8. 집중분석 - 사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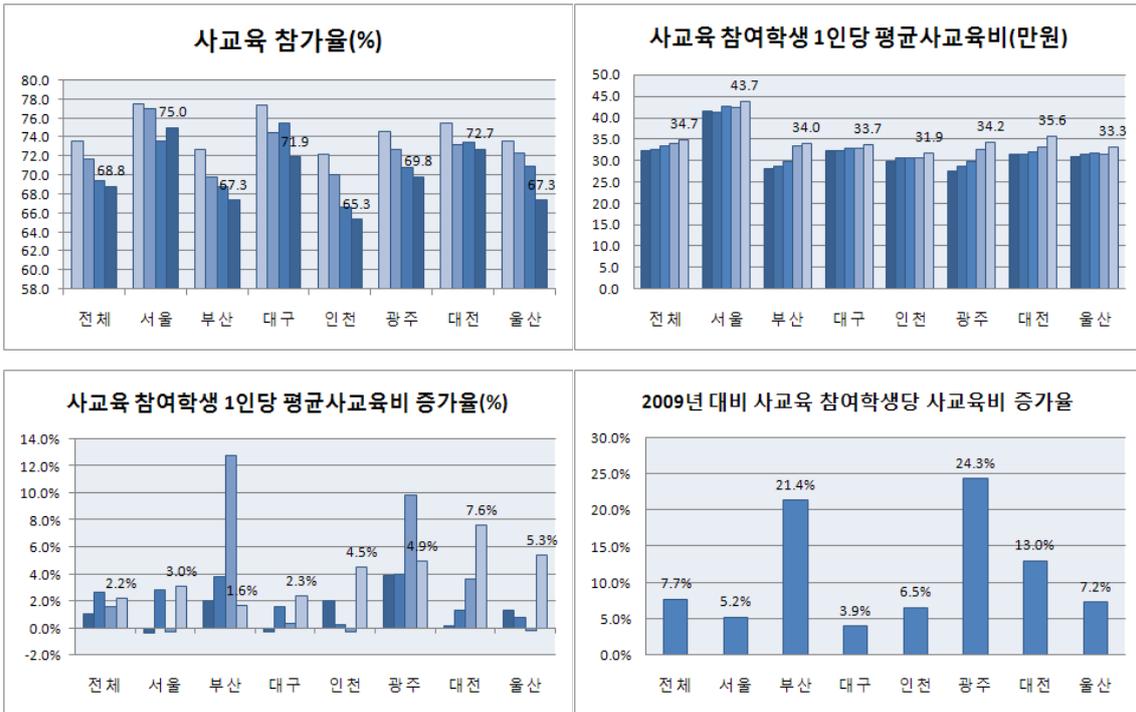
- 2013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23.9만원으로 작년 23.6만원에서 소폭 상승함. 그러나 이 금액은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로 큰 변동은 없음.
- 광주광역시의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23.9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5% 증가해 부산, 대전과 함께 사교육비가 상승하는 지역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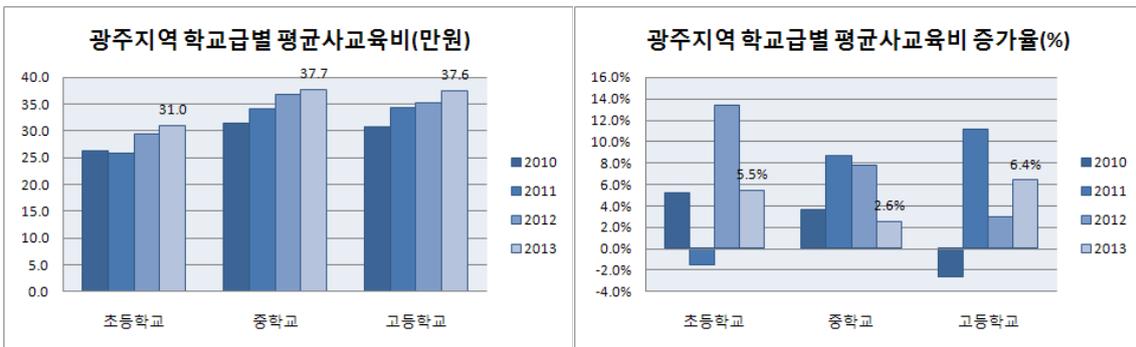
-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지역은 69.8%의 참여율을 보임.
-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면 광주지역은 서울(43.7만원)

과 대전(35.6만원)에 이은 34.2만원을 기록함.

- 지난 5년간 광주지역의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꾸준한 모습임.
- 광주지역의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5년간 24.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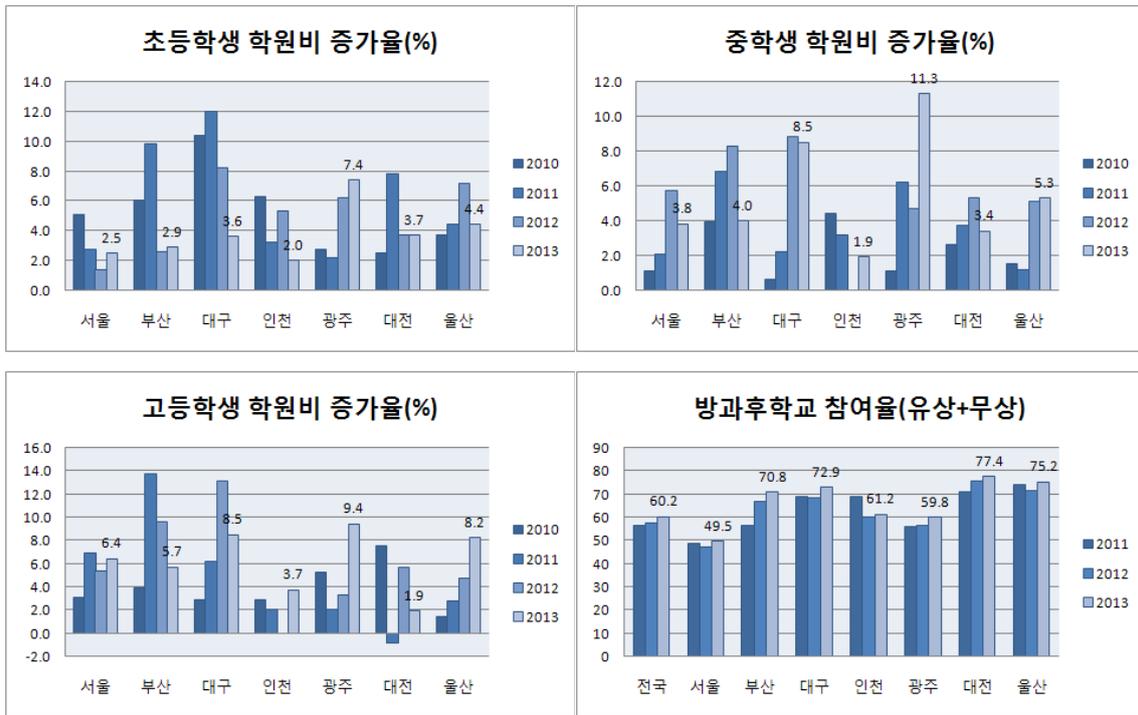


- 광주지역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평균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1.0만원(+5.5%), 중학교 37.2만원(2.6%), 고등학교 37.6(6.4%)만원으로 나타남.



-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학원비 항목을 보면 전년대비 초등학생 학원비가 7.4%, 중학생 학원비가 11.3%, 고등학생 학원비가 9.4%증가함에 따라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사교육의 대안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광주지역의 참여율은 59.8%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기대교육 수준에 대한 사회조사에서 광주지역은 자녀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 취득을 원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남.

※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수준 (30세 이상 인구, 2012년)

	고등학교 이하	4년제 미만 대학	4년제 이상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서울	0.8	5.8	64.1	12.9	16.4
부산	1.6	6.1	76.3	4.5	11.4
대구	0.9	4.9	75.6	7.8	10.8
인천	0.4	8.9	70.4	7.2	13.1
광주	0.9	7.1	69.2	7.9	15.0
대전	0.3	3.4	61.3	11.0	24.0
울산	0.6	8.8	73.7	7.9	9.0

□ 대학이상의 기대교육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경우 광주지역은 자녀의 인격과 교양을 쌓기 위해 대학에 보낸다는 비중이 23.8%로 가장 낮은 반면,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한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3%로 가장 높았음.

※ 부모의 자녀 대학기대교육 목적 (30세 이상 인구, 2012년)

	인격, 교양	좋은 직장	취미나 소질	사회적 관계	자신에 대한 보상	기타
서울	32.5	48.3	10.2	7.7	1.2	0.1
부산	30.9	53.1	7.0	7.1	1.6	0.4
대구	26.0	57.0	5.0	10.6	1.1	0.3
인천	28.5	49.1	11.4	8.6	2.3	0.2
광주	23.8	58.3	9.1	7.8	0.6	0.3
대전	28.9	52.4	7.8	8.6	1.4	0.8
울산	33.6	48.7	10.1	5.9	1.5	0.2

□ 소득과 소비에 대한 사회조사 중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로 광주지역은 교육비 부문에 있어 6.8%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항목 (복수응답, 19세 이상 가구주, 2013년)

	식료품비	외식비	의류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문화여가비	보건의료비	연료비	경조사비
서울	37.9	55.5	34.9	9.2	15.2	33.3	5.8	19.9	12.3
부산	46.0	41.3	23.4	7.6	18.3	21.6	8.0	27.6	12.1
대구	30.2	45.5	29.0	10.1	19.0	25.2	2.9	26.4	12.0
인천	37.0	47.0	24.6	8.6	21.6	25.0	5.8	33.0	12.5
광주	38.7	48.9	29.7	6.8	20.0	25.4	7.0	28.4	10.0
대전	39.0	53.2	29.2	8.8	20.3	26.4	4.1	20.0	8.8
울산	36.5	50.6	28.1	11.9	28.0	31.8	4.9	23.5	8.9

□ 이와 같이 광주지역의 부모는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교육에 대한 지출을 줄일 의향은 낮은 상황임.